

부부클리닉 방문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공성숙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Impact of Psychological Factors on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Proneness in Clinical Couples

Kong, Seong Soo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Cheona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factors that affect marital satisfaction or divorce likelihood in clinical couples. **Methods:** Clinical couples (n=57) who visited "M" couple clinic participated in the study.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005 to June 2006 using a Marital Satisfaction Scale, a Marital Status Inventory, Beck Depression Inventory,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and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esults:** The couples showed high scores on depression, obsessive-compulsion, personality factors and divorce probability and a low score on marital satisfaction. The wife's obsessive-compulsion was a predictor of her marital satisfaction, and the wife's social introversion and depression, and husband's obsessive-compulsion were predictors of the wife's prospect of divorce. The husband's hypomania and depression were predictors of his marital satisfaction, and there were no predictors of the husband's prospect of divorce. **Conclusion:** Obsessive-compulsion is a significant factor in a couple's relationship, although previous studies have not been interested in obsessive-compulsion. Divorce likelihood should be evaluated for clinical couples as well as marital satisfaction, because it is more important for divorce prevention. Each spouse who has a psychological problem such as depression, obsessive-compulsion, and deviated personality needs individual therapy as well as couple therapy.

Key words: Depression, Obsessive-compulsion, MMPI,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부부 중심의 핵가족에서는 다른 사회적 인간관계에 비해서 부부관계에서의 친밀감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나 별거 등의 가족해체 현상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건강과 안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ay & Heatherington, 1993).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70년대 이후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인구 천 명당 조이혼율이 1980년대에 0.6에서 1999년에는 2.5, 2003년에는 3.5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로는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2.5로 나타났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고

주요어 :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본 논문은 2007년 순천향대학교 교수 연구년제에 의하여 연구하였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ofessor Sabbatical year program (2007) of Soonchunhyang University.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ong, Seong Sook

Department of Nursing, Soonchunhyang University, 336-1 Ssangyong-dong, Cheonan 330-090, Korea

Tel: 82-41-570-2488 Fax: 82-41-575-9347 E-mail: kongsun@sch.ac.kr

투고일 : 2008년 6월 3일 심사외뢰일 : 2008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 2008년 7월 14일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혼율의 증가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관에서 벗어나 부부 사이가 조화롭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다는 결혼관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결혼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Kwon & Chae, 1999). 또한 '이혼가능성(divorce proneness)'도 결혼만족도 변인과 더불어 이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혼가능성'이란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하거나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상담자에게 말하는 등 이혼을 시도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Previti & Amato, 2003). Amato와 Hohmann-Marriott (2007)는 부부갈등이 높은 이혼부부 집단과 부부갈등이 낮은 이혼부부 집단, 그리고 이혼하지 않은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이혼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부부갈등이 낮은 부부 집단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르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결혼만족도나 부부갈등 정도는 확실한 이혼 예측요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Lee (2001) 또한 한국의 부부들에게 있어 결혼불만족은 이혼이나 별거를 하고 싶은 동기를 유발하기는 하나, 이혼을 계획하고 시도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은 서로 다른 변수이며,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결혼만족도만을 조사해왔으나 이혼가능성 또한 부부관계에서 또 다른 주요변수임을 시사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부터 다각적으로 수행되어 온 연구들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요인들, 부부 각자의 내외통제성, 성격특성, 역할분담, 성, 교육수준 등이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거나 (Botwin, Buss, & Shackelford, 1997),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Rogge, Bradbury, Hahlweg, Engl, & Thurmaier, 2006), 문제해결방식이나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의 관계(Park & Ko, 2005)를 주로 다룬 것을 볼 수 있다. 그밖에 부부의 가치관이나 성격의 유사성, 양육방식의 차이와 같은 부부 상호작용적 변인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Heavy, Layne, & Christensen, 1993). 그러나 개인의 비정상적 행동이나 심리적 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먼저 각 배우자의 우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소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다. Whisman, Uebelacker와 Weinstock (200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우울증상이 결혼만족도 및 자

이존중감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내의 경우 우울증상은 결혼만족도 및 부정적 의사소통 행동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남편과 아내 모두 우울과 결혼만족도 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Rehman, Gollan과 Mortimer (2008)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을 주는 요소가 되는데, 부부갈등과 우울감이 심한 배우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거의 없으며 이것이 정서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우울 변인과 이혼가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강박성이나 성격요인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소수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으나(Fals-Stewart, Birchler, Schafer, & Lucente, 1994; Ollendick, Otto, & Heider, 1983; Stokes & Wampler, 2002), 변인들 간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서로 일치되지 않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 심리적 변인과 이혼가능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6월부터 이혼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혼숙려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3-4년 전부터 정신간호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등 간호학 분야에서도 부부상담 영역에서 담당할 역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간호 분야에서의 이에 대한 중재활동과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는 다년간에 걸친 부부 치료 및 교육에 대한 경험과 서울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위원 및 이혼상담위원으로서의 경험에 비추어, 부부관계 증진 및 이혼예방을 위한 중재는 정신의학, 사회복지학, 임상심리학 분야 등과 함께 간호학 분야에서 도전해야 할 새로운 영역이라고 본다.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타학문 분야에 비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리 많지 않으므로, 본 연구는 부부상담 영역에서의 간호사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분야에서는 부부의 상호작용적 변인, 즉 의사소통이나 갈등해결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간호학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인이라고 본다. 간호사는 실제 간호현장에서 기혼의 여성 또는 남성의 심리적 문제들을 접할 기회가 많으므로,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부 이차관계의 관점과 접근이 간호학에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치료를 받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만족도 변인과 이혼가능성 변인의 상관성을 조사하고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조사함으로써 부부의 이혼에 관련된 요인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뿐 아니라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 및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본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조사하고,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파악한다.

둘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이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조사하고,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절차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는 심각한 부부갈등을 경험하여 상담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부부상담을 받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M부부클리닉에 내원한 부부들 중에서, 연구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소한의 표본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medium effect size=0.35, power=.80, 유의수준 $\alpha=.05$ 를 기준으로 power analysis를 시행한 결과(Borenstein, Rothstein, & Cohen, 1997), 최소 52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 참여에 동의한 75쌍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자료를 제외한 57쌍(76%)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첫 회기에 상세한 설명 후 배부하고 2회기까지 작성해오도록 하였고 작성시간은

5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응답자 모두에게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3. 연구 도구

1) 우울

우울(depression)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eck 등(1961)이 고안한 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Lee와 Song (1991)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63점까지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하며, 총점이 20점 이상이면 주요우울장애의 삽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85$ 로 나타났다.

2) 강박성

강박성(obsessive-compulsion)을 측정하기 위해 Hodgson과 Rachman (1977)이 개발한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MOCI)를 Cho (1985)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0문항, 4개 하부 척도(확인, 청결, 의심, 지체)로 구성되어 있고, 예 1점, 아니요 0점의 2점 척도이다. 총점이 13점 이상이면 강박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ho (1985)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8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82$ 였다.

3) 다면적 인성검사

성격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성격검사로 정상으로부터 이탈된 이상행동의 진단을 목적으로 하며, Hathaway와 McKinley (1943)가 개발하고 Kim 등(1994)이 번안한 383문항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예 1점, 아니요 0점의 2점 척도이며, 4개 타당도 척도(무응답 척도, L-척도, F-척도, K-척도)와 10개의 임상 하부척도(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특성-여성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로 구성되어 있다. MMPI의 결과는 각 척도당 평균 50점, 표준 편차 10으로 환산된 T 점수로 표시된다. 각 척도의 점수가 70점 이상이거나 30점 이하인 경우 각 점수가 정상범위(31-69점)에서 이탈된 정도가 클수록 심리적 갈등이나 부적응 정도가 더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

bach $\alpha=.71-.84$ 로 나타났다.

4)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marital satisfaction)를 측정하기 위해 Roach, Frazier와 Bowden (1981)의 결혼만족도 도구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Lee와 Yoo (1986)가 변안한 48문항 중에서 변별지수가 높은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5$ 로 나타났다.

5) 이혼가능성

이혼가능성(divorce proneness)을 사정하기 위해서 Weiss와 Cerreto (1980)가 개발한 결혼상태 평가도구(Marital Status Inventory, MSI)를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가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배우자 또는 변호사 등과 상담여부, 자녀양육, 재산 분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여부 등의 내용으로 14문항이며, 예 1점, 아니요 0점의 2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4점 이상이면 이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82$ 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사용하여 입력하고 분석하였다.

첫째, 부부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둘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연구 도구의 분류기준 점수에 따라 대상자의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셋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넷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이 각 배우자의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950-1.00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00-1.053으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았으며, 상태지수(CI)는 3.951-12.439

로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잔차분석을 한 결과, Dubin Watson 검정결과는 1.554-1.959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정규성 분포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관찰치의 Cook's distance 값이 0.115 이하로 기준치인 1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영향점으로 추정되는 관찰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1.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2와 같다. 대상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57)

Variables	Category	n (%)	
Religion	Wife	None	21 (36.9)
		Christian	17 (29.8)
		Buddism	4 (7.0)
	Husband	Catholic	15 (26.3)
		None	24 (42.1)
		Christian	15 (26.3)
Education	Wife	Buddism	5 (8.8)
		Catholic	13 (22.8)
		<High school	11 (19.3)
	Husband	College/university	42 (73.7)
		>Graduate school	4 (7.0)
		<High school	4 (7.0)
Occupation	Wife	College/university	38 (66.7)
		>Graduate school	15 (26.3)
		Office work	19 (33.3)
	Husband	Service work	5 (8.8)
		Engineer work	0 (0.0)
		Professional work	6 (10.5)
Type of marriage	Wife	Home maker/others	27 (47.4)
		Office work	31 (54.4)
		Service work	4 (7.0)
	Husband	Engineer work	5 (8.8)
		Professional work	13 (22.8)
		Others	4 (7.0)
Type of marriage	Love marriage	43 (75.4)	
	Match marriage	4 (7.0)	
	Mixed type	10 (17.6)	
Number of children	None	14 (24.6)	
	1	19 (33.3)	
	2	23 (40.3)	
	3	1 (1.8)	
Type of family life	Only couple	17 (29.8)	
	Couple and children	36 (63.1)	
	With husband's family	3 (5.3)	
	With wife's family	1 (1.8)	
	Others	0 (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ajor Variables of the Couples

(N=57)

Variables	Wife		Husband	
	Mean±SD	Range	Mean±SD	Range
Age	35.36±5.72	27-54	37.26±5.96	28-58
Number of children		1.06±0.92 (Range: 0-3)		
Years of marriage		7.41±7.44 (Range: 1-31)		
Depression	18.18±9.91	4-44	13.60±8.75	2-36
Obsessive-compulsion	7.64±4.17	0-19	8.19±5.15	0-23
MMPI				
L (lie scale)	49.54±9.97	25-75	49.73±9.72	26-74
F (infrequency scale)	48.22±9.62	27-72	48.32±9.07	25-73
K (correction scale)	52.72±10.22	30-78	53.69±10.67	32-82
Hypochondriasis	56.37±10.17	28-75	54.47±9.79	37-78
Depression	53.49±9.55	33-76	51.44±10.64	24-77
Hysteria	59.30±10.89	33-81	56.04±10.95	31-85
Psychopathic deviate	59.07±8.81	31-82	55.00±10.03	36-80
Masculinity-femininity	48.70±10.78	25-87	50.07±9.50	31-77
Paranoia	53.12±10.02	37-79	50.47±10.69	32-81
Psychasthenia	49.00±10.48	22-75	48.16±10.68	24-72
Schizophrenia	49.68±9.56	24-82	49.23±10.91	30-82
Hypomania	49.75±9.70	31-69	47.93±10.14	25-75
Social introversion	43.42±9.62	25-73	48.19±9.90	29-72
Marital satisfaction	30.33±9.10	7-46	35.60±9.09	3-53
Divorce proneness	6.65±3.38	0-14	3.95±3.14	0-14

부부는 총 57쌍으로, 평균 연령은 아내 35.36세, 남편 37.26세로 나타났다. 결혼연수는 평균 7.41년이었고, 자녀 수는 1.06명이었으며, 부부의 결혼형태는 연애결혼이 43쌍(75.4%)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형태는 '부부만'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53쌍(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종교는 무교가 아내 36.9%, 남편 42.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와 천주교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이 아내 73.7%, 남편 66.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아내는 고졸 이하가 19.3%로 나타난 반면, 남편은 대학원 졸업이 26.3%를 차지하였다. 직업에 있어서는 아내의 경우 사무직과 주부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남편의 경우 사무직이 54.4%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각 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는 Table 2와 같으며, 각 척도의 분류기준 점수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먼저 우울은 아내 18.18점, 남편 13.60점으로 아내의 우울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BDI의 주요우울장애 분류점수인 20점을 기준으로 빈도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43.9%와 남편의 22.8%가 2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성에 있어

서는 아내 7.64점, 남편 8.19점으로 남편의 점수가 다소 높았다. 아내의 경우 대상자 1명이 강박성에 관한 설문지의 완성도가 미흡하여 제외시킨 결과, 총 56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MOCI에 있어서도 강박장애의 분류점수인 13점을 기준으로 하여 빈도를 분석한 결과, 아내의 16.1%와 남편의 22.8%가 13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면적 인성검사를 통해 본 성격요인에서는 타당도 척도 중 K척도에서 아내의 경우 남편의 점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MMPI에서는 31-69점에 속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행동과 성격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며, 본 연구에서는 30점 이하 또는 70점 이상을 보인 대상자가 아내의 경우 히스테리 척도에서 15.8%로 가장 많았고 건강염려증, 반사회성, 남성특성-여성특성이 8.8%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남편의 경우에도 히스테리가 10.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반사회성(8.8%)으로 나타났다. 또한 MMPI의 10개 척도 중에서 1개 이상의 척도에서 30점 이하 또는 70점 이상을 보인 대상자는 아내의 38.6%, 남편의 28.1%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에 있어서는 아내 30.33점, 남편 35.60점으로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혼가능성에서는 아내 6.65점, 남편 3.95점으로 아내의 이혼가능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혼가능성의 경우 MSI 척도에서 아내와 남편 중 한 사람이라도 4점 이상이면 이혼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

Table 3. Major Variables of the Couples according to Cutoff Scores (N=57)

Variables	Categorization	Wife	Husband
		n (%)	n (%)
Depression	≤ 19	32 (56.1)	44 (77.2)
	20 ≤	25 (43.9)	13 (22.8)
Obsessive-compulsion	≤ 12	47 (83.9)*	44 (77.2)
	13 ≤	9 (16.1)	13 (22.8)
MMPI	31-69	35 (61.4)	41 (71.9)
	≤ 30 or 70 ≤	22 (38.6)**	16 (28.1)**
Hypochondriasis	31-69	52 (91.2)	55 (96.5)
	≤ 30 or 70 ≤	5 (8.8)	2 (3.5)
Depression	31-69	55 (96.5)	53 (93.0)
	≤ 30 or 70 ≤	2 (3.5)	4 (7.0)
Hysteria	31-69	48 (84.2)	51 (89.5)
	≤ 30 or 70 ≤	9 (15.8)	6 (10.5)
Psychopathic deviate	31-69	52 (91.2)	52 (91.2)
	≤ 30 or 70 ≤	5 (8.8)	5 (8.8)
Masculinity-femininity	31-69	52 (91.2)	54 (94.7)
	≤ 30 or 70 ≤	5 (8.8)	3 (5.3)
Paranoia	31-69	53 (93.0)	53 (93.0)
	≤ 30 or 70 ≤	4 (7.0)	4 (7.0)
Psychasthenia	31-69	54 (94.7)	54 (94.7)
	≤ 30 or 70 ≤	3 (5.3)	3 (5.3)
Schizophrenia	31-69	55 (96.5)	53 (93.0)
	≤ 30 or 70 ≤	2 (3.5)	4 (7.0)
Hypomania	31-69	56 (98.2)	54 (94.7)
	≤ 30 or 70 ≤	1 (1.8)	3 (5.3)
Social introversion	31-69	53 (93.0)	55 (96.5)
	≤ 30 or 70 ≤	4 (7.0)	2 (3.5)
Divorce proneness	≤ 3	12 (21.1)	25 (43.9)
	4 ≤	45 (78.9)	32 (56.1)

*N=56 (one uncompleted questionnaire for wife's MOCI was excluded);

**This frequency is calculated by counting the number of participants who corresponded to at least one subscale among 10 subscales of MMPI.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78.9%와 남편의 56.1%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만 4점 이상이고 한 사람은 4점 미만인 부부는 26쌍(45.6%), 부부가 모두 4점 이상을 보인 부부는 26쌍(45.6%)으로 52쌍(91.2%)이 이혼가능성을 나타냈으며, 부부가 모두 4점 미만을 보인 부부는 5쌍(8.8%)에 불과했다.

3.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요인 간의 상관관계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먼저 각 배우자의 MMPI 10개 하부 척도 점수를 가변수로 처

리하지 않고 Table 2에 제시된 원래의 점수와 아내 및 남편의 우울, 강박성,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Table 4), 아내와 남편의 MMPI 하부척도들은 모두 서로 배우자의 우울, 강박성,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의 이혼가능성은 반사회성($r=.283$)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내향성($r=-.340$)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인 MMPI 변인은 없었다. 남편의 경우, 이혼가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MMPI 변인은 없었으며,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에서는 MMPI의 경우 10개 하부척도 중 최소한 1개 이상의 척도에서 30점 이하 또는 7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대상자를 0점, 31-69점을 보인 대상자를 1점으로 가변수 처리하여 나머지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강박성, 아내의 이혼가능성, 남편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이혼가능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아내의 이혼가능성은 아내의 우울,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강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아내의 결혼만족도, 남편의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남편의 이혼가능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 및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밖에 아내의 강박성은 아내의 성격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남편의 우울은 남편의 강박성 및 성격요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아내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고 본인과 배우자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 중에서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 변인과 상관성이 유의했던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Table 4, 5),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6).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내의 강박성($\beta=-.268$, $t=-2.04$, $p=.046$)이었으며 5.5%의 설명력을 보였다. 아내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내의 성격요인 중 내향성($\beta=-.379$, $t=-3.18$, $p=.002$)과 아내의 우울($\beta=.355$, $t=2.99$, $p=.004$), 남편의 강박성($\beta=-.288$, $t=-2.46$, $p=.017$)으로 나타났으며 25.9%의 설명력을 보였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편의 성격

Table 4. Correlations among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Depression, Obsessive-Compulsion and MMPI subscales in Couples

MMPI subscales	Wife				Husband			
	D	OC	MS	DP	D	OC	MS	DP
Wife								
Hypochondriasis	.437**	-.134	-.009	.213	.045	-.209	.053	-.154
Depression	.554**	.222	.080	.068	.026	-.075	.154	-.185
Hysteria	.381**	-.039	-.054	.187	.048	-.133	.037	-.193
Psychopathic deviate	.209	.017	-.048	.283*	.034	-.129	.153	.034
Masculinity-femininity	.120	.076	.114	.035	-.048	.038	.092	-.084
Paranoia	.417**	.210	-.152	.210	-.023	-.147	-.120	.137
Psychasthenia	.431**	.281*	.041	.194	-.081	-.078	.133	-.185
Schizophrenia	.466**	.197	-.031	.183	-.129	-.141	.010	-.044
Hypomania	.233	.094	-.100	.174	-.078	.103	-.176	.187
Social introversion	.181	.261	.025	-.340**	-.074	.102	.001	-.196
Husband								
Hypochondriasis	-.019	-.155	.208	.048	.521**	.050	.011	-.055
Depression	-.093	-.186	-.051	.068	.521**	.109	-.038	-.046
Hysteria	-.098	-.128	-.033	.158	.532**	.008	-.144	.103
Psychopathic deviate	.082	.165	-.255	.241	.275*	-.007	-.186	.203
Masculinity-femininity	-.100	-.162	-.077	.065	.206	.178	-.183	.061
Paranoia	.064	-.077	-.192	.090	.545**	.143	-.326*	.217
Psychasthenia	-.027	-.067	-.180	.042	.502**	.163	-.283*	.091
Schizophrenia	.085	-.083	-.168	.123	.447**	.184	-.274*	.104
Hypomania	.251	.111	-.217	.140	.153	.222	-.385**	.227
Social introversion	-.115	.012	-.048	-.082	.382**	.141	-.193	-.057

D=depression; OC=obsessive-compulsion; MS=marital satisfaction; DP=divorce proneness.

*p<.05; **p<.01; ***p<.001.

Table 5. Correlations among Marital Satisfaction, Divorce Proneness, and Psychological Factors in Couples

Variable	Wife				Husband				
	OC	MMPI†	MS	DP	D	OC	MMPI†	MS	DP
Wife									
Depression	.201	-.147	.041	.284*	.052	.071	.178	.147	.059
Obsessive-compulsion		-.263*	-.268*	.071	-.122	-.063	.156	.042	.107
MMPI†			.125	-.148	.208	.044	-.094	-.047	-.164
Marital satisfaction				-.384**	-.059	.155	.114	.524***	-.305*
Divorce proneness					.039	-.298*	-.065	.093	.153
Husband									
Depression						.275*	-.317*	-.327*	.150
Obsessive-compulsion							.039	-.229	-.065
MMPI†								.163	.027
Marital satisfaction									-.334*

D=depression; OC=obsessive-compulsion; MS=marital satisfaction; DP=divorce proneness.

*p<.05; **p<.01; ***p<.001.

†This is made with dummy variable (correspondents with ≤30 or 70≤ at least one subscale among 10 subscales of MMPI, 0; correspondents with 31-69 in all 10 subscales of MMPI, 1).

요인 중 경조증($\beta = -.339, t = -2.77, p = .008$)과 남편의 우울($\beta = -.282, t = -2.30, p = .025$)이었으며 19.5%의 설명력을 보였다. 한편 남편의 이혼가능성은 아내 및 남편의 심리적 요인들 중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가 하나도 없었으므로(Table 4, 5)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의 기본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회귀분

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

Table 6.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or Marital Satisfaction and Divorce Proneness

Dependent variable	Adjusted R ²	Model Test		Influencing factors	β	t	p
		F	p				
Marital satisfaction							
Wife's marital satisfaction	.055	4.17	.046	Wife's obsessive-compulsion	-.268	-2.04	.046
Husband's marital satisfaction	.195	7.66	.001	Husband's MA of MMPI	-.339	-2.77	.008
				Husband's depression	-.282	-2.30	.025
Divorce proneness							
Wife's divorce proneness	.259	7.40	.000	Wife's SI of MMPI	-.379	-3.18	.002
				Wife's depression	.355	2.99	.004
				Husband's obsessive-compulsion	-.288	-2.46	.017

MA=hypomania; SI=social introversion.

자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조사하고,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 강박성, 그리고 경조증, 내향성과 같은 성격요인이 결혼만족도 또는 이혼가능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한 결과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들의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살펴본 결과 이들의 결혼만족도는 낮고 이혼가능성은 높았으며, 높은 우울, 강박성 수준과 이상 성격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우울에 있어서는 주요우울장애의 진단기준인 20점 이상의 점수를 보인 경우가 아내의 43.9%, 남편의 22.8%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강박성에 있어서도 아내의 16.1%와 남편의 22.8%가 강박성장애로 진단내릴 수 있는 기준인 13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성격요인에 있어서는 각 하부 척도의 점수가 외국의 선행 연구에서 부부치료를 받는 부부들에게서 나타난 결과보다 대체로 낮은 수치였으나(McCranie & Kahan, 1986; Ollendick et al., 1983), 각각의 하부척도에서 3.5-15.8%의 대상자가 정상범위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고, 10개의 하부척도 중 1개 이상의 척도에서 30점 이하 또는 70점 이상의 비정상 범위를 보인 대상자가 아내의 38.6%, 남편의 28.1%로 나타났다. Hjermboe와 Butcher (1991)가 부부치료를 받는 아내의 55.3%와 남편의 48%가 1개 이상의 척도에서 65점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와 비교하면, 기준점수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본 연구에서 훨씬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부부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부부들의 경우 각 배우자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결혼만족도는 60점 만점에 아내 30.33점, 남편 35.60점으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였고 남편보다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결혼만족도에 관한 여러 논문들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Kwon & Chae, 1999; Park & Ko, 2005). 이혼가능성의 경우 4점 이상이면 이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78.9%, 남편의 56.1%가 높은 이혼가능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남편에 비해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더 낮고 이혼가능성이 높으며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도 아내 측에서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간에 높은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내의 이혼가능성은 낮고,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이혼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Previti와 Amato (2003)도 1,424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사이에 유의한 역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전체 부부 중 201쌍이 이혼을 하였는데, 회귀분석 결과 이혼가능성은 실제 이혼의 유의한 예측변인이었으나 결혼만족도는 예측변인으로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이혼가능성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아내의 이혼가능성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편은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 이혼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으나, 아내는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하여 이혼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아내의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결혼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아내의 이혼가능성과 남편의 이혼가능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에 비추어 볼 때, 이혼가능성에는 결혼만족도 이외에 다른 변인들이 관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Previti와 Amato (2003)에 의하면 결혼만족도가 낮으면 이혼가능성을 고려하게 되지만, 이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에는 가족(자녀, 배우자)에 대한 책임감, 도덕적·종교적 가치관,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법적인 제

약들, 배우자에 대한 경제적 의존 등이 있다. 지금까지 결혼만족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연구되어 왔지만 이혼가능성이 더 중요한 이혼예측요인을 감안할 때,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에게는 이혼가능성도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각 배우자의 MMPI 하부 척도와 아내 및 남편의 우울, 강박성,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아내의 이혼가능성은 반사회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내향성과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McCranie와 Kahan (1986)도 여러 번의 이혼을 경험한 집단에서 이혼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유의하게 반사회성 점수가 높은 것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반사회성이 높은 배우자들이 충동적이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에서 초래되는 지루함이나 관례를 건디지 못하는 편이며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인 낙인에 대해서도 덜 민감한 특성이 있어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이혼가능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인 MMPI 변인은 없었으며,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다. Fals-Stewart 등(1994)은 결혼만족도가 낮고 갈등정도가 심한 부부에게서 남편의 반사회성, 강박증, 편집증, 경조증, 정신분열증, 우울 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에서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격요인과 결혼만족도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집착성이 강하고 문제해결력에 융통성이 없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Hjembøe와 Butcher (1991)는 부부치료를 받는 남편에게서 히스테리와 반사회성만이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역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경조증은 결혼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유의한 예측변인은 아내의 강박성이었고, 아내의 이혼가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내의 성격요인 중 내향성과 아내의 우울, 남편의 강박성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의 예측요인은 남편의 경조증과 남편의 우울이었으며 남편의 이혼가능성은 아내 및 남편의 심리적 요인들 중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수가 없었으므로 회귀분석을 시행할 수 없었다. 먼저 아내의 강박성은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이고 아내의 강박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았으므로 나타났으며, Stokes와 Wampler (2002)도 부부치료를 받는 재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강박성 변인 간에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Black, Gaffney, Schlosser와 Gabel (1998)은 강박성 장애 환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우자들 중 67%가 결혼갈등이 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강박성 장

애가 의사소통, 감정적인 관여, 일반적인 기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편의 강박성은 아내의 이혼가능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남편의 강박성이 낮을수록 아내의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에게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강박성이 오히려 지나치게 결여되어 있을 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저하되어 아내로 하여금 과도한 책임을 떠맡게 함으로써 이혼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Arntz, Voncken과 Goosen (2007)은 강박성 장애 환자들에게 있어, 책임감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닥칠 피해를 예방하며 실수로 인해 타인의 비난을 듣지 않도록 매사에 확인하는 행동(checking behavior)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강박성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지만, 낮은 강박성도 이혼가능성의 예측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의 관련변인으로 강박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강박성이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아내의 이혼가능성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앞서 언급한 남편의 강박성과 아울러 아내의 내향성, 아내의 우울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혼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는 거의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아내의 내향성이 이혼가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내향성이 낮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내가 외향적일수록 이혼이나 별거에 대해 배우자 이외의 사람들과 상의하거나 변호사와 접촉 또는 자문을 구하는 등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능동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아내의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우울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의 예측변인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우울이 심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결과들을 보고하였으며(Rehman et al., 2008; Stokes & Wampler, 2002), 우울과 이혼가능성 변인 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다만 Rotermann (2007)이 이혼한지 2년이 경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혼하지 않은 부부에 비해 우울이 유의하게 높음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이혼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우울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우울이 이혼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예측변인으로는 남편의 경조증과 우울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경조증과 우울 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장애나 조증과 같은 남편의 정서적인 문제가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조증과 결혼만족도 사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으며(Fals-Stewart et al., 1994; Hjemboe & Butcher, 1991), 성격요인 중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MMPI 하부척도 중 반사회성 변인만이 유일하게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보고됨으로써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제시되었다(Ollendick et al., 1983). Whisman 등(2004)의 연구에서는 우울이 아내와 남편에게서 모두 결혼만족도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우울한 배우자는 일상생활에서의 부부간에 비난이나 폭언과 같은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많고, 여가나 취미활동을 즐기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을 뿐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적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해받고 수용된다는 느낌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Rehman 등(2008)은 부부관계에서의 결혼만족도가 낮을 때 우울이 더 심해지고 재발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여, 오히려 결혼만족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우울감이 결혼불만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낮은 결혼만족도가 우울증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의 우울 및 강박성 변인과 MMPI에 포함된 성격요인으로서의 우울과 강박증 간의 상관성을 조사한 결과, 우울에 있어서는 아내의 우울과 우울 성격요인 간에, 남편의 우울과 우울 성격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박성 변인에 있어서는 아내의 강박성과 강박 성격요인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남편의 강박성과 강박 성격요인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우울과 강박성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나 성격요인인 우울과 강박증은 유의한 예측요인이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우울 및 강박성 변인과 MMPI에 포함된 성격요인으로서의 우울과 강박증은 서로 다른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편 또는 아내의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의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간호사는 임상이나 지역사회에서 만나는 간호대상자들의 우울, 강박성 등의 심리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 변인과 관련지어 사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간호대상자들이 자신의 심리적 문제와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 변인의 연관성을 인식하도록 돕고 나아가 이혼을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부부 상담에서의 간호사의 역할이 보다 확고하게 정립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부클리닉을 방문한 부부를 대상으로 각 배우자의 우울, 강박성, 성격요인과 같은 심리적 요인과 결혼만족도, 이혼가능성을 조사하고, 심리적 요인이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향후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결혼만족도와 이혼가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두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결혼만족도가 낮다고 하여 이혼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만족도 변인뿐 아니라 이혼가능성 변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에 관련된 변인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강박성은 거의 연구되지 않은 변인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및 이혼가능성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 향후 부부치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이혼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및 후속연구에 다음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클리닉 방문 부부의 우울, 강박성 및 성격요인 등의 심리적 요인에서 정상범위를 이탈하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는 배우자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므로, 의사소통, 갈등해결 등 이들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부치료뿐 아니라 각 배우자의 심리적인 문제를 위한 개인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이혼가능성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 심리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후에 불안, 적개심 등 보다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향후 보다 임상활용도가 높은 부부치료 및 간호전략이 개발되어 우리나라의 이혼율 감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mato, P. R., & Hohmann-Marriott, B. (2007). A comparison of high- and low- distress marriages that end in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621-638.
- Arntz, A., Voncken, M., & Goosen, A. C. (2007).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 experimental test.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45*, 425-435.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lack, D. W., Gaffney, G., Schlosser, S., & Gabel, J. (1998). The impact of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on the family: Preliminary finding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86, 440-442.
- Borenstein, M., Rothstein, H., & Cohen, J. (1997). *Power and precis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otwin, M. D.,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Personality and mate preferences: Five factors in mate selec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65, 107-136.
- Bray, J. H., & Hetherington, E. M. (1993). Families in transition: Introduction and overview.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 3-9.
- Cho, D. K. (1985). The study of objective measurement for obsessional-compulsive behavior: The standardization of the list of obsessional-compulsive behavior in Maudsley obsessional-compulsive inventory. *Seoul University Student Review*, 20, 78-90.
- Fals-Stewart, W., Birchler, G.R., Schafer, J., & Lucente, S. (1994). The personality of marital distress: An empirical typ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2, 223-241.
- Hathaway, S. R., & McKinley, J. C. (1943). *The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Rev. ed.).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jemboe, S., & Butcher, J. N. (1991). Couples in marital distress: A study of personality factors as measured by the MMPI-2.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7, 216-237.
- Hodgson, R. J., & Rachman, S. (1977). Obsessional-compulsive complai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389-395.
- Kim, Y. H., Kim, J. H., Kim, J. S., Noh, M. L., Shin, D. K., Yeum, T. H., et al. (1994). *The Guide for MMPI*. Seoul: Korean Guidance.
-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2004). *Clinical application of Gottman's marital therapy model*. Seoul: Korea Marital Relationship Enhancement Institute.
- Kwon, J. H., & Chae, G. M. (1999).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8, 123-139.
- Lee, I. S., & Yoo, Y. J. (1986). An assessment of the validity of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Korean Journal of Home Management Association*, 4, 1-13.
- Lee, K. S. (2001). Predictors of divorce intention, attempt, and plan.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6, 97-119.
- Lee, Y. H., & Song, J. Y.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 98-113.
- McCranie, E. W., & Kahan, J. (1986). Personality and multiple divorce. A prospective study.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74, 161-164.
- Ollendick, D. G., Otto, B. J., & Heider, S. M. (1983). Marital MMPI characteristics: A test of Arnold's sign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9, 240-245.
- Park, Y. H., & Ko, J. H. (2005). The effects of self and spouse's self-esteem, communication, conflict coping behaviors on marital satisfactio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 65-83.
- Previt, D., & Amato, P. R. (2003). Why stay married? rewards, barriers,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561-573.
- Rehman, U. S., Gollan, J., & Mortimer, A. R. (2008). The marital context of depression: Research, limitations, and new direction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79-198.
- Roach, A., Frazier, L., & Bowden, S.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3, 537-545.
- Rogge, R. D., Bradbury, T. N., Hahlweg, K., Engl, J., & Thurmaier, F. (2006). Predicting marital distress and dissolution: Refining the two-factor hypothesi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 156-159.
- Rotermann, M. (2007). Marital breakdown and subsequent depression. *Health Reports*, 18(2), 33-44.
- Stokes, S. B., & Wampler, R. S. (2002). Remarried clients seeking marital therapy: Differences in levels of psychological and marital distress.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8, 91-106.
- Weiss, R. L., & Cerreto, M. C. (1980). Development of a measure of dissolution potential.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8, 80-85.
- Whisman, M. A., Uebelacker, L. A., & Weinstock, L. M. (2004). Psychopathology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both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2, 830-838.